

한국어판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XINHUI HAN¹⁾ 이 보 라^{2)*} Dian Sawitri³⁾

¹⁾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박사과정생

²⁾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³⁾Diponegoro University 심리학과 / 교수

자녀가 진로목표를 탐색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중요한 피드백 제공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진로 발달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진로상담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Sawitri 등 (2021)이 인도네시아어로 개발한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Individual-Parent Career Goal Discrepancies Scale)를 한국 배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번역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인 대학생 500명을($M=22.29$ 세; $SD=2.13$)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원칙도의 역량 차이(Ability Discrepancies), 선택 차이(Choice Discrepancies), 열정 차이(Enthusiasm Discrepancies)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한국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일치도, 진로 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지위, 일유인가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동시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판별타당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어판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가 진로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의해 지원되었음
(NRF-2023S1A5C2A02095547).

† 교신저자 : 이보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296, E-mail: boralee117@korea.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진로목표 설정은 진로정체성 발달에서 중요한 과제로, 개인이 자신의 미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Erikson, 1968).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은 전공 선택을 시작으로 인턴십, 사회적 경험, 멘토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업적 방향성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나간다. 이 시기에 설정된 진로목표는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 학업과 직업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인 동기를 유발하며(김경옥, 2009; 임선아, 2012; Clements & Kamau, 2018), 개인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진로목표는 개인의 가치관과 흥미를 반영하면서도(Lent et al., 1994), 현재의 관심과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기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다(Schoon & parson, 2002; Silvia, 2001).

진로목표의 중요성은 다양한 이론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진로 연구 및 상담 현장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목표 설정 이론(Goal Setting Theory)에서는 목표의 특성과 설정 과정이 개인의 수행과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Locke & Latham, 1990, 2015).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Locke & Latham, 1990, 2015) 피드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목표 수행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고, 반대로 피드백이 부족할 경우 목표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어려워 동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피드백 제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정과 동기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목표가 개인의 동기와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동시에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진로

목표는 관심사나 가치보다 더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다(Lent et al., 1994). 이는 목표가 단순한 내적 신념이나 성향이 아니라, 실제 진로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Schoon & Parson, 2002; Silvia, 2001).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진로목표는 일회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색과 피드백을 거쳐 조정되는 과정이다(Locke & Latham, 1990, 2015). 부모는 학생들이 진로목표를 탐색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피드백 제공자로 기능하며, 학생들이 진로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Tynkkynen et al., 2010). 따라서, 목표의 동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목표는 부모의 피드백과 의견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개인의 진로 관심, 선택, 수행 과정이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3).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맥락적인 요인들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요인을 통해 인간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Bandura, 1994), SCCT는 맥락적인 요인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3). 부모가 자녀에의 진로에 대한 기대 및 진로목표에 대한 개입은 SCCT에 의하면 맥락적, 환경적 요인들로서 자녀들의 진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진로목표가 일치하면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동기가 강화되며, 진로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으로 긍정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문찬주 외, 2019; 이근영, 연구진, 2019; Sawitri et al., 2014; Söner & Gültekin,

2024), 목표가 불일치할 경우 자녀는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수빈, 김동일, 2022; Hong & Cui, 2024; Widyowati et al., 2024). 나아가, 맥락적, 환경적 요인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distal) 요인과 단기적인(proximal)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3). 장기적으로 볼 때, 맥락적 요인은 자녀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작용하여, 자녀가 진로관련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인 자기효능감, 자신의 결정을 현실로 실행하는 때 기대되는 결과, 그 과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3). 즉, 부모가 자녀 진로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맥락적 요인은 실제 진로선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3). 이 과정은 진로선택 시점에서 진로선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지원과 같은 요인으로서, 자신의 선호보다는 맥락적인 요인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 연장자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존경과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적 가치인 효도를 중요시하는 국가이고(김문준, 2021; Buzo, 2022; Lew et al., 2011; Wang, 2022), 관계 속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Kitayama & Uchida, 2005), 부모가 진로에 대한 기대와 개입은 학생들의 진로 목표 설정 과정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대와 가치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김성환, 박상우, 2008), 부모의 기대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마다 다르다. 그중에서 제일 간편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부모가 진로목표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단일 문항으로 학생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임선아(2012)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부모님(혹은 다른 중요한 타인들)은 당신의 진로선택을 지지해줄까요?”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의 진로 지지 정도를 평가했다. 김재희(2020)와 조명근 외(2020) 역시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자녀의 희망 직업과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일치하는지를 묻고, 이를 일치(0)와 불일치(1)로 코딩하여 활용하거나, 일치 정도를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단일 문항을 활용하는 방식은 응답하기 간편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와 타당도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응답을 각각 수집하고 다양한 변수 계산을 통해 목표 일치 혹은 불일치 변수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문찬주 외(2019)와 이선숙과 왕정원(2022)은 학생과 부모가 희망하는 전공 계열을 각각 응답하도록 한 후, 부모의 응답과 자녀의 응답이 일치하는 경우 1, 불일치하는 경우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다.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진로선택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일치 여부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세밀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진로목표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거나 낮은지, 또는 부모가 자녀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Hong과 Cui(2024)와 Lee 외(2022)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희망 직업을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나, 반응 표면을 분석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 간 진로 기대의 불일치 패턴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기대 차이를 단순한 차이 점수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부모와 자녀의 기대를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설정한 후, 다항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기대 불일치가 자녀의 진로선택 및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모두 높은 경우와 모두 낮은 경우, 그리고 부모의 기대가 높지만 자녀의 기대가 낮은 경우 등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기대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연구자가 분석 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 수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타당화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로는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 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 척도’(신동우, 유계숙, 2012)와 ‘진로 관련 부모지지 척도’(김수리, 2005; Turner et al., 2003)가 있다. 또한, 부모가 제공하는 진로 관련 심리적 지지와 정보 제공 유형을 측정하는 ‘부모 진로행동 검사’(서진희, 이계경, 2009; Keller & Whiston, 2008)와 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지지, 간섭, 관여 부족 등)을 평가하는 ‘부모 진로 관련 행동 척도’(조아라 외, 2013;

Dietrich & Kracke, 2009)도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어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구체적인 진로 지원 방식과 개입 정도를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지지 통해 부모가 진로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는 ‘진로결정 관계성 척도’(김은영, 2007)와, 진로 스트레스 척도의 (박희락, 2009; Choi et al., 2011) 하위요인인 ‘외적 갈등’이 있다. 한국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적 어려움, 부모의 기대, 학벌 우월주의 경향, 나이 등을 진로 미결정 요인으로 측정하는 ‘한국판 진로 미결정 척도’도(Tak & Lee, 2003)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한 예시이다. 이러한 척도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부모의 실제 인식이나 부모-자녀 간의 기대 차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권다현, 연구진, 2019). 부모와 자녀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요인을 포함한 척도를 부모와 자녀 각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상희(200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하고, 신효정 외(2010)가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부모 진로 지지 척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진로 지지를 각각 측정하고 비교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차이 점수의 유용성을 주장하며 이를 지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Gollwitzer et al., 2014; Trafimow, 2015; Sawitri et al., 2020에서 재인용), 신뢰도가 낮고 효과 크기를 감소시키는 등 이 유로(Edwards, 2001: Sawitri et al., 2020에서 재인용),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으며(Edwards, 1994; Edwards & Parry, 1993: Sawitri et al.,

2020에서 재인용), 마이너스 값이 존재되어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실용적인 한계가 있다 (Sawitri et al., 2020).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awitri와 동료들은(2013)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 기대 일치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척도(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를 개발하여 부모와 자녀 간 진로에 대한 일치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권다현과 연구진(2019)이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영광과 임소현(202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타당화하였다. 해당 척도는 부모와 자녀가 진로에 대해 얼마나 일치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동시에,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가 진로에서의 일치도를 측정했을 때, 일치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도 어떤 측면에서 불일치가 발생했는지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상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Sawitri와 동료들은(2021) 선행 연구에서 입증된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 불일치(Leong et al., 2011)에 주목하여,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목표설정이론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의 진로목표 불일치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녀-부모의 진로 목표 차이 척도(Discrepancies Between Individual-Set and Parent-Set Career Goals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원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느끼는 ‘역량 차이(Ability Discrepancies)’, 자녀의 진로목표가 부모가 원하는 진로목표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선택 차이(Choice Discrepancies)’,

부모가 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열정 차이(Enthusiasm Discrepancies)’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자녀가 인식하는 불일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Sawitri et al., 2021). 이 척도는 활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불일치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척도는 처음 24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가지 요인구조를 확인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와는 부적 상관을 통해 동시타당도,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가 진로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통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나아가,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진로선택 과정에서 더 많이 타협하고 진로목표를 낮추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Widyowati et al., 2024).

이 척도는 진로상담 및 심리 평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설문지 형태로 활용할 때 부모와 자녀 간 진로목표 불일치의 구체적 양상을 수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정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세 가지 하위요인별 점수를 통해 불일치가 어느 영역에서 두드러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점검표 형태로 활용하여 상담 장면에서 심층 탐색 도구로 사용할 경우, 자녀가 점검한 항목에 대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부모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나 갈등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불일치를 단순한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 의견 차이의 원인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 진로목표 불일치를 내담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상담 개입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불일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진로 목표 간 차이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부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 구체화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활용하려면 상담자는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부모의 의견을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부모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 설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개입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불일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거나 자신의 진로 목표를 부정당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럴 때 상담자는 감정 수용과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개입을 통해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도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하고 갈등 상황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 척도가 진로상담 및 심리평가에서 유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자녀-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인 집단에서도 동일한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인도네시아어로 개발된 척도가 한국어로 번안된 후에도 문항의 내용이 응

답자에 의해 동일하게 인식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색하였다.

1. 원척도에서 제시한 3개의 요인구조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는 같은 요인구조를 갖는가?

2.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였을 때 동시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판별타당도는 적절한가?

방 법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 절차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UIRB-2024-0264-02). 본 연구는 한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현상이 자신의 진로나 진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재학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과 수료생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자료수집은 자료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총 500명(남성 50%, 여성 50%)이었고, 평균 나이는 22.29세($SD=2.13$)이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가장 많았고($n=151$, 30.2%), 그 다음으로 3학년($n=143$, 28.6%), 2학년($n=114$, 22.8%), 1학년($n=76$, 15.2%), 4학년 이상($n=16$, 3.2%) 순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대학에 재학 중인 참여자가 제일 많았고($n=276$, 55.2%),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n=88$, 17.6%),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n=40$, 8.0%) 순으로 많았다. 참여자들의 전공 계열을 살펴보면, 공학 계열이 가장 많았으며($n=141$, 28.2%), 그다음으로 인문 계열($n=68$, 13.6%), 의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n=53$, 10.6%)이 동일한 비율로 많았으며, 자연 계열($n=51$, 10.2%)이 그 뒤를 이었다. 진로결정의 수준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진로 대안 중에서 고민 중인 참여자가 제일 많았고($n=282$, 56.4%), 완전히 결정한 참여자($n=155$, 31.0%), 결정하지 못한 참여자($n=63$, 12.6%) 순으로 참여하였다.

측정 도구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본 연구에서는 Sawitri와 동료들(2021)이 개발한 Individual-Parent Career Goal Discrepancies Scale을 타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번역 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자 2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국어로 번안한 후, 회의를 통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상의하고 수정하여 한국어 번역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다음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 경험이 있고 한국어가 모국어인 교육 관련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척도의 개발자에게 역번역된 문항과 원문항을 함께 주고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은 5문항으로 측정된다. 첫 번째 하위요인인 역량 차이(Ability Discrepancies)는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 부모가 정한 진로목표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에 맞는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가 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선택 차이(Choice Discrepancies)는 자녀가 자신의 진로목표와 부모의 진로목표가 다르다고 느끼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선호하시는 진로가 따로 있어서 내가 선택한 진로를 반대하신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열정 차이(Enthusiasm Discrepancies)는 부모가 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녀의 인식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로 갈 마음이 없다’ 등이 있다. Sawitri와 동료들(2021)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은 역량 차이 .94, 선택 차이 .88, 열정 차이 .93, 전체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역량 차이 .90, 선택 차이 .92, 열정 차이 .89, 전체 .93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진로 관련 행동과 발달을 지지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Sawitri 외(2013)이 개발하였고, 이영광과 임소현(2023)이 한국어로 타당화하였다.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완적 일치(7문항)와 상호적 일치(5문항)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나뉜다. 보완적 일치는 ‘부모님은 내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고, 상호적 일치에는 ‘내가 나를 위해 스스

로 마련한 진로 계획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고 계신 진로계획과 유사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응답은 1~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진로에 대해 더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보완적 일치 .90, 상호적 일치 .90, 전체 .94로 나타났다.

진로 스트레스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진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였고, 박희락(2009)이 개발하고 Choi와 동료들(2011)이 타당화한 한국판 진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로 불확실성, 취업 압박, 정보 부족, 외적 갈등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요인별 5문항씩). 예시 문항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서 고민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진로 관련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93이고, 하위요인 별로는 진로 불확실성 .92, 취업 압박 .85, 정보 부족 .88, 외적 갈등 .83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지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측정하여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추가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척도는 Porfeli와 동료들(2011)에 의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이보라 외(2014)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진로 탐색, 진로 몰입, 진로 재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진로탐색 차원은 전반적 진로탐색과 심층적 진로탐색으로 나뉘고, 진로 몰입 차원은 진로 몰입확신과 진로 일체감으로 나뉘며, 진로 재고 차원은 진로 자기의심, 진로 유연성으로 나뉘므로 총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정체감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항과 '조금 더 탐색해볼 만한 진로가 있을까 하여 내가 잘 모르는 진로에 대해서도 무심코 알아본다'등이 있다. 응답자는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내적 일관성 전반적인 진로탐색 .77, 심층적 진로탐색 .80, 진로몰입 확신 .67, 진로 일체감 .79, 진로 자기의심 .79, 진로 유연성 .85로 보고되었다.

일유인가

Porfeli와 동료들(2012)이 개발하고, 이보라와 Kim(2019)이 번안한 일유인가 척도로 개인의 일에 대해 얼마나 끌리는지를 측정하여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 기대정서, 부정 기대정서, 긍정 기대경험, 부정 기대경험의 네 가지 하위차원이 있다(차원별 7문항씩). 응답자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매우 피곤할 것 같다', '상사로부터 긍정적인 대우를 받을 것 같다'와 같은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일에 대한 긍정 기대정서 .88, 일에 대한 부정 기대정서 .89, 일에 대한 긍정 기대경험 .88, 일에 대한 부정 기대경험 .80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척도를 한국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특정 이론을 검증하거나 기존에 만들어진 측정도구를 다양한 집단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점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분된다(Tabachnik & Fidell, 2007).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 구조가 이미 수립되었거나, 요인 구조가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어 이론적인 가정이 있을 때 실시하므로(탁진국, 2007), 이미 제시된 개념적 모델이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집단에도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witri와 동료들(2021)이 제안한 3요인 구조 모델이 한국 대학생 집단에도 적합한지를 우선 평가하였다. 그러나 번안된 척도의 하위요인 구조가 원척도와 동일한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잠재요인이나 문항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도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른 집단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모든 요인분석은 Mplus 8.3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절대적 합치도(χ^2)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Tabachnik & Fidell, 2007), 상대적 합치도인 CFI, TLI, RMSEA, SRMR의 수치를 동시에 확인하고,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본 척도의 동시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진

로 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지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유인가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동시에, Fornell와 Larcker(1981)의 주장에 근거하여 AVE의 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였다. 기술통계 및 내적 일관성, 그리고 관련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SPSS 26.0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 과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의 요인분석

전체 표집에서 무작위로 250명(여성=126명, 50.4%)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 적합도 수치가 모두 만족스러웠고($\chi^2=184.76$, $df=.87$, $p=.00$, CFI=.96, TLI=.96, RMSEA=.07, SRMR=.06),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도 모두 .70을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문항이 상위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원척도의 3요인 구조를 검증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번안된 척도가 한국어로 사용될 때 다른 요인구조를 가질 가능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문항이 원척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의 문항 간 관계나 자료패턴을 탐색하고자 남은 250명(여자=124명, 49.60%) 대상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1요인 모형부터 5요인 모형까지 검증하여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모델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5요인 모델은 수렴 실패로 인해 결과가 도출되

표 1. 3요인구조 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신뢰도

요인명	문항	CFA 요인 부하량* (n=250)	EFA 요인 부하량* (n=250)	Cronbach's α (N=500)
역량 차이 (5문항)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에 맞는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83	.68	.9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로 가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82	.88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따라갈 만큼 똑똑하지 않다.	.81	.86	
	나는 부모님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진로를 끝까지 갈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83	.77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76	.72	
선택 차이 (5문항)	부모님은 선호하시는 진로가 따로 있어서 내가 선택한 진로를 반대하신다.	.82	.86	.92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진로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 싶어 하신다.	.84	.84	
	부모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가 내가 선택한 진로보다 낫다고 주장하신다.	.84	.84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진로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85	.84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진로를 권유하신다.	.84	.78	
열정 차이 (5문항)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로 갈 마음이 없다.	.83	.84	.89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로 갈 의욕이 없다.	.73	.83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다.	.84	.85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로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76	.69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로 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82	.79	

주. *표준값으로 표시되었음.

지 않았고, 1요인 및 2요인 모형은 적합도가 낮아 제외하였으며, 3요인과 4요인 모형이 적합한 후보로 검토되었다(표 2). χ^2 차이 검정($\chi^2=44.268$, $\Delta df=12$, $p=.00$) 결과 4요인 모형이 통계적으로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GEOMIN 회전 결과를 확인한 결과, 4요인 모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모형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1 요인	940.84	90	.68	.62	.19	.12
2 요인	439.17	76	.86	.81	.14	.06
3 요인	129.87	63	.98	.96	.07	.02
4 요인	85.60	51	.99	.97	.05	.02

텔의 마지막 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묶이는 문항이 없었다. 이는 해당 요인이 명확한 개념적 해석이 어렵고 실질적인 구성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3요인 모형과 4요인 모형의 CFI(3요인=.98, 4요인=.99)와 RMSEA(3요인=.07, 4요인=.05)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Sawitri와 동료들(2021)들의 요인구조 및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보다 단순한 3요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3요인 모형을 채택한 후, 전체 표집을 대상으로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을 보았을 때, 역량 차이 .90, 선택 차이 .92, 열정 차이 .89로 대체로 우수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또한, 각 하위차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3), 세 가지 하위 차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체 척도와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당도 검증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시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검증하였다(표 4).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는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및 그 하위요인인 보완적 일치와 상호적 일치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와 본인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부모-자녀 사이에 자녀의 진로 계획과 준비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진로정체감의 형성이나 발달에 불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로정체감 지위를 결정하는 과정 변인

표 3.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하위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N=250)

	1	2	3	4	M (SD)
1.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1				2.91 (1.00)
2. 역량 차이	.88**	1			3.08 (1.23)
3. 선택 차이	.82**	.62**	1		2.40 (1.19)
4. 열정 차이	.79**	.56**	.42**	1	3.26 (1.21)

주. * $p < .05$, ** $p < .01$

표 4.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의 타당도(동시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판별타당도)

	본인-부모 진로 목표 차이	역량 차이	선택 차이	열정 차이	M (SD)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49**	-.40**	-.45**	-.37**	4.08 (0.98)
보완적 일치	-.46**	-.39**	-.46**	-.30**	4.17 (0.99)
상호적 일치	-.46**	-.37**	-.38**	-.41**	3.94 (1.09)
진로 스트레스	.50**	.56**	.38**	.31**	3.05 (0.77)
진로 불확실성	.41**	.49**	.28**	.27**	3.05 (1.08)
취업 압박	.22**	.34**	.04	.15**	3.63 (0.88)
정보 부족	.38**	.42**	.26**	.27**	3.08 (0.97)
외적 갈등	.59**	.53**	.65**	.30**	2.45 (0.91)
진로 탐색	-.09	-.12**	-.09*	-.00	3.60 (0.62)
전반적 진로탐색	-.04	-.06	-.05	.01	3.59 (0.70)
심층적 진로탐색	-.12**	-.15**	-.12**	-.02	3.61 (0.65)
진로 몰입	-.25**	-.29**	-.19**	-.13**	3.49 (0.63)
진로몰입 확산	-.19**	-.27**	-.10*	-.10*	3.37 (0.71)
진로 일체감	-.27**	-.28**	-.24**	-.14**	3.58 (0.67)
진로 재고	.33**	.39**	.23**	.19**	3.38 (0.68)
진로 자기의심	.40**	.44**	.33**	.21**	3.12 (0.84)
진로 유연성	.11*	.18**	-.00	.09*	3.70 (0.75)
긍정 일유인가	-.26**	-.30**	-.22**	-.13**	3.54 (0.62)
긍정 기대경험	-.26**	-.30**	-.20**	-.14**	3.50 (0.66)
긍정 기대정서	-.24**	-.27**	-.22**	-.10*	3.50 (0.65)
부정 일유인가	.46**	.46**	.40**	.28**	2.68 (0.71)
부정 기대경험	.42**	.42**	.38**	.24**	2.80 (0.72)
부정 기대정서	.43**	.43**	.36**	.28**	2.55 (0.83)

주. * $p < .05$, ** $p < .01$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인-부모 진로 목표 차이와 전반적인 진로탐색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의 하위 차원과 전반적인 진로 탐색과의 부적인 상관관계는 역량 차이와 선택

차이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 열정 차이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 몰입과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 및 그 하위 차원과의 부적인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이는 대학생이 인지한 본인-

부모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진로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진로재고와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 및 그 하위 차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진로에 대한 자기의심 정도가 높고, 다른 진로 대안을 고려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일유인가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긍정 일유인가와는 부적인 상관관계, 부정 일유인가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학생이 인지한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끌림 정도가 낮아지고, 일을 하면서의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모두 .80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개념 간 중복 가능성이 낮음으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Hair et al., 2019; Kline, 2015).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는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진로 스트레스, 진로 정체감 지위, 일유인가의 각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 판별타당도는 두 개념이 개별적인 구성개념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충족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상관 계수가 .80을 넘지 않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된다고 보지만(Hair 외, 2019; Kline, 2015), 일부 변인 간(예, 부모-자녀 진로 일치도, 진로 스트레스의 외적 갈등) 상관이 다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Fornell과 Larcker(1981)의 기준에 따라, 각 하위요인의 AVE를 계산하고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하였다.

표 5.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 각 하위요인 별 AVE 및 판별타당도 충족 여부

변수	AVE	최대 r^2	판별타당도 충족 여부
역량 차이	.64	.31	O
선택 차이	.71	.42	O
열정 차이	.63	.16	O

AVE 값이 다른 변수와의 상관 계수 제곱값보다 크면,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의 하위요인과 다른 변인의 하위요인은 서로 다른 구성개념임을 설명한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 결과,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의 하위요인별 AVE는 역량 차이 0.64, 선택 차이 0.71, 열정 차이 0.63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른 변인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계수 제곱값과 비교한 결과, 모든 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는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진로 스트레스, 진로 정체감 지위, 일유인가 및 그 하위요인들과 구별되는 개념임을 설명한다.

논 의

본 연구는 Sawitri와 동료들(2021)이 개발한 척도인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도네시아어로 된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인 대학생 500명의 응답을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진로정체감 지위, 일유인가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

론적으로 원칙도에서의 3요인 구조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원칙도의 구성개념을 따르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awitri와 동료들(2021)이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안한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의 3요인 구조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타당한 요인구조임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델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적합도를 충족하였고, 요인 적재량 또한 모든 문항이 .7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번안 후의 문항이 새로운 요인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4요인 모델이 통계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추가된 요인을 구성개념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3요인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진로목표 차이는 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진로목표가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인식하거나, 부모가 설정한 진로목표를 따라야 한다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각각 ‘역량 차이’, ‘선택 차이’, ‘열정 차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로 번안 후에도 본 척도는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의 여러 차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으로 타당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어로 된 척도가 한국어로 번안되었을 때도 원칙도와 같은 요인구조를 갖는 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권위와 위계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 차원 이론에 따르면 두 국가 모두 권력 거리가 높은 문화권에 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Hofstede, 2001; Hofstede Insights, n.d.). 이러한 유사성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대를 중시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자녀들이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진로목표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는 양상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동시타당도 검증 결과,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는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및 그 하위 차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적 일치는 자녀가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부모 또한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이근영, 연규진, 2019; 이영광, 임소현, 2023; Sawitri et al., 2013;), 본인-부모 간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상호적 일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희망진로 간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진로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완적 일치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 탐색과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이근영, 연규진, 2019; 이영광, 임소현, 2023; Sawitri et al., 2013), 본인-부모 간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보완적 일치 수준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가 더 크게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동시타당도를 만족하여, 자녀와 부모 간의 진로목표 차이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에서는 자녀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부모는 단

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여러 차원에서 자녀의 진로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부모-자녀 진로목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부모의 진로 지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더라도, 부모와의 진로 목표 차이를 통해 자녀가 부모의 지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진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와 이를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진로 선택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진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는 진로 스트레스 및 그 하위요인인 진로 불확실성, 취업압박, 정보 부족, 외적갈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본 척도의 하위요인 중 역량 차이와 선택 차이는 진로 스트레스 및 외적 갈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열정 차이 또한 다른 하위요인보다 외적 갈등에서 제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자녀가 진로 준비 과정에서 더 큰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주변 환경과의 갈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척도를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면,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자녀가 느끼는 환경적인 압박을 파악하고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부모의 진로목표에 대한 견해를 부담으로 인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진로정체감 지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는 진로 탐색과 그 하위요인인 전반적인 진로탐색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심층적인 진로 탐색과의 부적인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특정 진로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폭넓은 탐색은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부모 간의 진로목표 차이는 진로몰입과 부적인 관계, 진로재고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진로 자기의심과의 관계가 두드러졌다. 이는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워지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진로 몰입 수준이 낮아지면서,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재고 과정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부모의 생각과 일정 수준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선행 연구들과도 통하는 결과이다(Skorikov & Vondracek, 2007). 본 척도를 활용하면 상담자는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진로목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로 자기의심이나 몰입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다. 진로목표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환경적 요인으로 다루어야 하기에, 부모와의 의견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의사소

통 방식을 개선하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를 지나치게 내면화하면 자녀의 진로 탐색 과정이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진로탐색 과정에서 자기의심으로 이어지거나,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면 자녀가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주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모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가치를 명료화하고, 의사결정 훈련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자는 본 척도를 활용하여 부모가 진로에 대한 견해를 내담자가 단순한 환경 관련 문제로 인식하는지,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자기의심이나 진로에 대한 몰입 저하로 이어졌는지 파악하여, 이에 맞는 개입을 선택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긍정·부정 일유인가 및 그 하위요인들과 본 척도의 하위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모두 .80 이하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척도에서 측정하는 개념이 일유인가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척도가 다른 개념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개념임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AVE 값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AVE 값이 최대 r^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척도가 기존 개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성개념임을 추가로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 개념을 측정하는 타당한 측정 도구임을 시사한다. 본 척도는 상담 장면에서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담자가 경험하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면, 일유인가 척도

와 함께 활용하면, 내담자가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인지, 단순히 일에 대한 끌림의 문제인지 구별하여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변안 및 타당화한 본인-부모 진로목표 차이 척도는 진로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진로목표 조율 관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하여,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심리적 불안이나 진로 탐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평가함으로써, 상담자가 개인 맞춤형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진로 목표가 충돌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본 척도를 통해 부모의 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자녀의 진로 탐색에 부담을 주는 지 평가할 수 있다. 상담자는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게 강요되는 경우 자녀의 진로 몰입이 저하되고, 자기 확신이 약화하는 경향을 파악하여, 부모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는 자녀의 진로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장면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진로목표 차이가 학업 동기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가 클수록 학생들이 진로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경험하고, 진로 몰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척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업 지원 프로그램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렇듯

부모와 본인 간의 진로에 관한 생각이나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한 개입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 특성상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본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논의와 조율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더욱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부모의 진로목표 차이 측정도구가 한국 배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라는 실증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연구의 제한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효도를 중요시하고,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이 강한 한국에서 진행되었고, 원척도가 타당화된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이 강하다. 따라서 본 척도의 결과를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본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문화적 차이가 척도의 측정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모두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이 강한 나라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한국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불교적 전통이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특유의 배경에서 형성되는 요인이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이나 사회에 진입한 성인에게 적용할 경우 동일한 요인구조나 신뢰도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기대가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진로 결정의 주체성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에 진입한 성인은 이미 독립적인 진로 결정을 내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본 척도가 측정하려는 본인-부모 간 진로 목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여, 청소년 및 사회 진입 이후의 성인 등을 대상으로 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집단에 적합한 문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목표 차이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부모가 없는 대학생에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보호자의 지원 없이 성장한 개인들은 부모와의 진로목표 차이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거나, 그 의미가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라는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보호자 또는 주요 양육자로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 보고식 설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응답자의 주관적 해석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가 기존에 사용되던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진로목표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강점은 있으나 응답자 특성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기 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 보고식 자료를 함께 수집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실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진로목표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 연구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다현, 연규진 (2019). 청소년-부모 진로 일치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6(5), 85-116.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문준 (2021). 한국인의 효의식과 효행의 과거 현재 미래. *양명학*, (61), 261-287.
- 김성환, 박상우 (2008).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6(3), 199-214.
- 김수리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계성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8(4), 1435-1451.
- 김재희 (2020). 중학생과 부모 간 희망직업 및 희망교육수준 불일치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5), 89-117.
- 문찬주, 이영선, 이지영, 정동욱 (2019).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중학생의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0(3), 617-645.
- 박희락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성숙의 예측: 진로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 신동우, 유계숙 (2012).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합억,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2.
- 신효정, 김영빈, 이상희, 이상민 (2010). 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73-190.
- 이근영, 연규진 (2019). 청소년-부모 진로 일치와 진로결정: 성취를 통한 가족 인정 지향성에 의한 접근목표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2(2), 25-46.
-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 이보라, Eunjoo Kim (2019). 한국판 일유인가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283-302.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이선숙, 왕정원 (2022). 부모의 진로 기대와 자녀의 진로 결정의 일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종합연구*, 20(1), 1-24.
- 이수빈, 김동일 (2022). 실제자기-부모기대 불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3(5), 81-100.
- 이영광, 임소현 (2023). 대학생 자녀-부모 진로 일치도 척도 타당화. *농업교육과 인적자*

- 원개발, 55(3), 79-100.
- 임선아 (2012).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과 부모의 진로선택 지지, 진로선택 역경극복 의지가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21-238.
- 조명근, 이규원, 채석원 (2020). 초중고 학부모와 자녀의 희망진로 미스매치와 진로성숙도. *학부모연구*, 7(1), 77-95.
-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89-408.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학지사.
- Wang, X. (2022). 유교 孝 문화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부모 봉양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35), 153-178.
- Bandura, A. (1994). Self-efficacy. In V. S. Ramachau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4*. (pp. 71-81). Academic Press.
- Buzo, A. (2022). *The making of modern Korea*. Routledge.
- Choi, B., Park, H., Nam, S., Lee, J., Cho, D., & Lee, S. (2011). The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Career Stress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6), 559-572.
- Clements, A., & Kamau, C. (2018). Understanding students' motivation towards proactive career behaviours through goal-setting theory and the job demands - resources model.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3(12), 2279-2293.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Edwards, J. (1994). Regression analysis as an alternative to difference scores. *Journal of Management*, 20(3), 683-689.
- Edwards, J. R. (2001). Ten difference score myth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3), 265-287.
- Edwards, J., & Parry, M. (1993). On the use of polynomial regression equations as an alternative to difference scores in organization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6), 1577-1613.
- Erikson, E. H. (1968). The life cycle: Epigenesis of identity. *Identity: Youth and crisis*, 7, 91-135.
- Fornell, C., &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llwitzer, M., Christ, O., & Lemmer, G. (2014). Individual differences make a difference: On the use an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difference scores in social psycholo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7), 673-68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Cengage Learning.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Sage Publications.
- Hofstede Insights. (n.d.). Country comparison: Power distance. Retrieved April 5, 2025, from <https://www.hofstede-insights.com/product/compare-countries/>
- Hong, P., & Cui, M. (2024). Discrepancies in parent-adolescent educational and career expectations and overparent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1(2), 435-457.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ller, B., & Whiston, S.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 Kitayama, S., & Uchida, Y. (2005). Interdependent agency: An alternative system for action. In R. M. Sorrentino, D. Cohen, & J. M. Olson (Eds.), *Cultural and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 Vol. 10*. (pp. 137-16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The Guilford Press.
- Lee, B., Park, H., & Park, S. (2022). Parent-adolescent vocational aspiration congruence and its relations with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7), 1374-1387.
- Lent, R., Brown, S.,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465.
- Leong, F., Hardin, E., & Gupta, A. (2011). Self in vocational psychology: A cultura formulation approach. In P. J. Hartung & L. M. Subich (Eds.), *Developing self in work and career: Concepts, cases, and contexts* (pp. 193-21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w, S., Choi, W., & Wang, H. (2011). Confucian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filial piet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1(2), 171-196.
- Locke, E., & Latham, G.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 task performance*. Prentice-Hall, Inc.
- Locke, E. A., & Latham, G. P. (2005). Goal-setting theory. In J. B. Miner (Ed.), *Organizational behavior 1: Essential theories of motivation and leadership* (pp. 159-183). Routledge.
- Porfeli, E., Lee, B., Vondracek, F., & Weigold, I.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 Porfeli, E., Lee, B., & Weigold, I. (2012).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 val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340-350.
- Sawitri, D., Creed, P., & Perdhana, M. (2021). The discrepancies between individual-set and parent-set career goals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8(5), 654-669.
- Sawitri D., Creed P., & Zimmer-Gembeck M. (2013). The Adolescent - 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 210-226.
- Schoon, I., & Parsons, S. (2002). Teenage aspirations for future careers and occupational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 262-288.
- Silvia, P. (2001). Expressed and measured vocational interests: Distinctions and defini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3), 382-393.
-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07). Vocational identity. In V. B. Skorikov & W. Patton (Eds.),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43-168). Brill.
- Söner, O., & Gültekin, F. (2024).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 parent career congruence: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Allyn & Bacon.
- Tak, J., & Lee, K.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rafimow, D. (2015). A defense against the alleged unreliability of difference scores. *Cogent Mathematics*, 2(1), 1064626.
- Turner, S., Alliman-Brissett, A., Lapan, R.,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 Tynkkynen, L., Nurmi, J., & Salmela-Aro, K. (2010). Career goal-related social ties during two educational transit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3), 448-457.
- Widyowati, A., Hood, M., Duffy, A., & Creed, P. (2024). The interactive effects of self-and parent-referenced career goal discrepancies on young adults' career indecis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원 고 접 수 일 : 2025. 03.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4. 11

게 재 결 정 일 : 2025. 04. 21

Validation of the Individual-Parent Career Goal Discrepancies Scale in Korea

XINHUI HAN¹⁾ Bora Lee²⁾ Dian Sawitri³⁾

¹⁾Korea Uniniversity Doctoral student

²⁾Korea University Professor

³⁾Diponegoro University Professor

Parents play a key role as feedback providers when children explore and revise their career goals. In this developmental process, a systematic tool is needed to measure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Individual-Parent Career Goal Discrepancies Scale, originally developed in Indonesian by Sawitri et al. (2021), for use in the Korean context.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Korean university students ($M = 22.29$, $SD = 2.13$),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original three subfactors: Ability discrepancies, Choice discrepancies, and Enthusiasm discrepancies.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career stress, career identity status, and work valence demonstrated satisfactory concurrent, construc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is study discusses the potential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to be used as a practical assessment tool in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al settings.

Key words : individual-parent career goal discrepancies, measurement, valida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